

작가 소개자료 | 강영길

[작가 소개]

20여 년간 디지털 이미지 작업을 해왔고, 최근 영상과 Generative Art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되는 아트) 등 동시대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작업 영역을 확장 시켜 나가고 있는 디지털 아티스트입니다. 오랜 시간 제가 탐구해온 것은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지고 주체가 전복되어 가는 현대 세계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고독과 공포, 그리고 새롭게 정의되는 생명의 의미입니다.

사진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초기 작품들은 구상과 추상의 경계 그리고 사진과 회화의 경계에 자리하며 저만의 독특한 예술적 언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파리 유학시절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스케일 있는 전시와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고, 제가 사진을 전공했지만 사진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장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고, 인간의 외형적 특성보다는 내면성을 드러내기 위해 물속에 있는 인물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빛과 물로 인해 왜곡된 형상의 이미지를 다시 디지털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저만의 추상 언어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아트사이드 북경’, ‘가나아트파크’, ‘영은미술관’ 레지던시에 입주해 있는 동안 미술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예술 세계를 펼쳐 나갔습니다. 국내외 많은 전시를 개최한 것은 물론 다양한 작품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품의 특성상 국내에서는 작업 환경이 한정되어 있어 강렬한 빛과 물을 찾아 2019년에 1년간 세계 여행을 떠났고 **상해, 유럽, 미국 등 약 10여 개국을 다니며 작업 소스를 만들고 각국의 예술가, 공학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인사이트를 얻어 새로운 미디어 작품을 기획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작품 세계가 한층 깊어지고 평면 작업을 미디어 작품으로 확장하는 등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상상한 작품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개발자, 엔지니어, VFX 회사 등을 찾아다니며 수많은 미팅을 진행했고, 그 결과 국내 유명 VFX 회사 ‘WestWorld’ 와 함께 첫 번째 Generative Art Project에 도전해 약 300여 점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미디어 작업과 함께 기존 평면 작업들을 더 활발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작가 노트]

오랜 시간 회화가 구상으로부터 추상으로 바뀌어 온 이유는 인간의 내면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20여 년 동안 나는 물속의 인물을 탐구해 왔고, 물의 파동과 빛의 효과로 인해 형태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내면성을 관찰했다. 그리고 내면성에 대한 탐구는 현대 문명 속 인간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현대 세계는 디지털 기반의 멈추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인간의 생명 윤리 조차도 새롭게 정의 되는 시대이다. 그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은 상실되고 해체되어 가고 있으며, 문명의 발달로 인해 이미 변해버려 원래의 가치로 되돌리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정체성은 희미해져만 간다.

영원히 멈추지 않고 끝없는 복제가 일어나는 곳
원본과 복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의미가 없는 곳, 가상 세계.

그곳은 세계의 시작이자 세계의 끝이다.

그곳에서는 세계의 끝의 바람이 불고, 세계의 끝의 냄새가 난다.

한 세계가 시작되고 한세계의 끝에 서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이 새롭게 정의되고 구성되는 의미를 시각화 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을 나타내고자 한다.”

[작품 시리즈 1]

LIMBO

Digital Painting

사진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회화

디지털 요소가 만들어낸 묘한 공간감과
회화적 입체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인
작품

림보 시리즈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사와
추상의 이미지가 공존하며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작품 시리즈 2]

MONOLITH

Digital Dessin

흑백의 선과 파티클로 데생하듯 이미지를
구성하고, 이미지의 레이어를 겹쳐내어 인
물 속 또다른 세계의 공간감이 느껴지도록
완성한 작품



[작품 시리즈 3]

Quantum Streakline

Generative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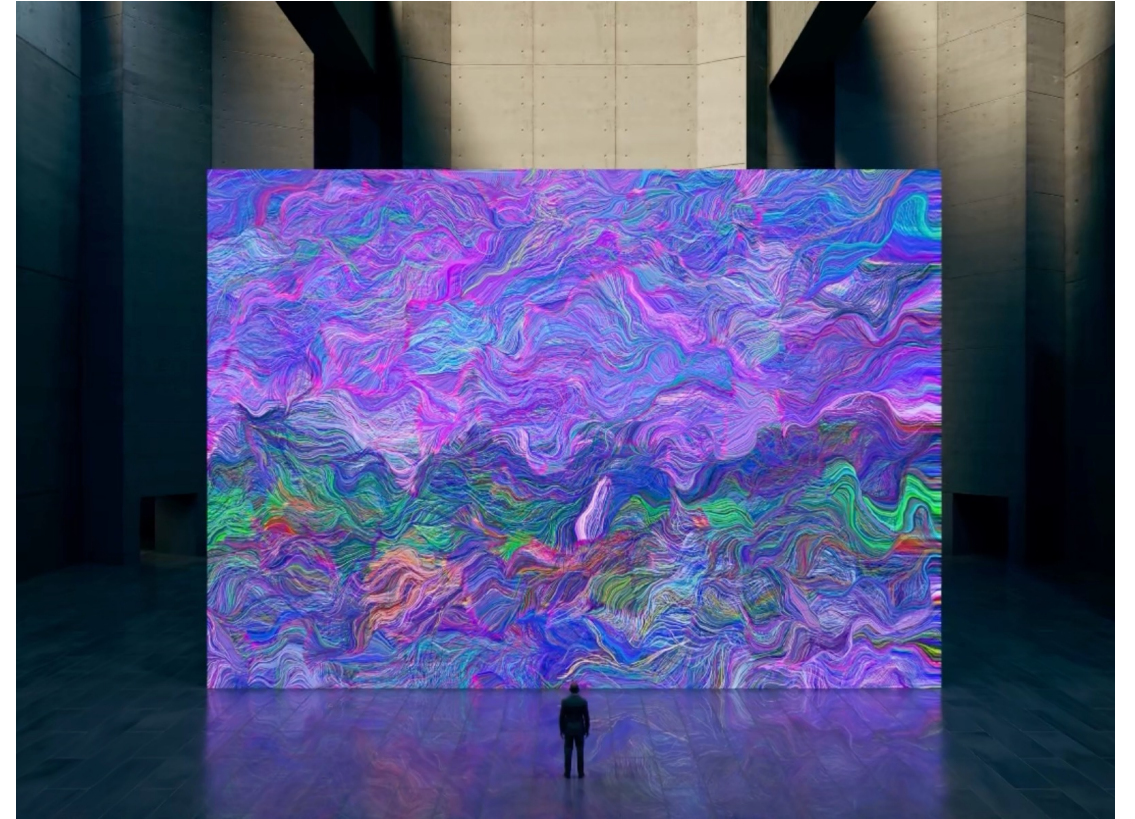
이 작품은 형태를 최소 단위로 분해한 Quantum dot의 궤적이 만들어 낸 형상이다.

각각의 점이 다양한 색의 조합을 형성하며 랜덤한 곡선을 그리고 그 움직임의 에너지가 끝 없는 파동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파동은 모든 것이 상실되고 해체된 시스템 속에서도 인간의 '생명력'이 형형색색의 입자로서 생을 갈구하는 듯한 에너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환경과 변화 속에서도 '인간이 인간일 수 밖에 없음'을 희구(希求)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몸짓이다.



■ Quantum Streakline



시뮬레이션 이미지

■ Quantum Streakline



Quantum Streakline, 2023
Generative Art



Quantum Streakline, 2024
Printed on paper

■ Quantum Streakline



Quantum Streakline, 2022
VOD
JTBC 프로그램



Quantum Streakline, 2023
Generative art,
Single channel digital work,
180x300cm, overall installed,
projector
Edition of 150

[전시]



2019 영은미술관



2021 Gallery M9

[전시]



2019 artCN Gallery / 상해



2019 Photo fair Shanghai/ 상해

[전시]



2017 텐리갤러리 / 뉴욕

[평론]

Culture Catch Mary Hrbæk



Art can be unfathomable; here there is a force that forges far beyond a Sunday religious experience into an unnamable domain where philosophical musings reach their boundaries. These works begin to flow into an allegorical realm in which water is both damning and cleansing. They convey us through the phases of life's slippery slope, where eventually there is no return. We go forward, or down into a place we created out of our own volition, in a life of constant enticement that is too strong to resist. I interpret these works as metaphorical stages, or incidences of temptation that confront us universally in all our lives. The outcomes we create from our decisions are documented in the liquid grave-like confines that flow in perpetuity with energy and life. In alchemical lore, the mercurial sea symbolizes the function of female transformational powers; drowning in volatile liquid is linked to amniotic fluid that suggests the "stage before a state of rebirth, death and the first gasp of breath." (*The Book of Symbols*, Water p. 33)

our lives. The outcomes we create from our decisions are documented in the liquid grave-like confines that flow in perpetuity with energy and life. In alchemical lore, the mercurial sea symbolizes the function of female transformational powers; drowning in volatile liquid is linked to amniotic fluid that suggests the "stage before a state of rebirth, death and the first gasp of breath." (*The Book of Symbols*, Water p. 33)

When photography was initially invented, figurative artists feared they would become outdated as photography so readily captures the visual reality of the physical world. But artists like to put their own stamp on their visions and processes. Perhaps it is not perceived as challenging or fulfilling to merely snap a picture. The photographs on view are anything but easy. They are profound symbolic representations of life as we progress toward our eternal fate. They are more like atmospheric paintings than paintings themselves. Such is the kaleidoscopic evolution of the individual artist as he carves his way through the tangled maze of art history to find and make his own enduring mark on his genre. Kang succeeds emphatically. - Mary Hrbæk

Ms. Hrbæk is an artist who has been writing reviews of NY art exhibitions since 1999; she has covered shows in almost every museum in town.



Huffpost D.Dominick Lombardi

LIMBO: Young Gil Kang at the Tenri

03/08/2017 12:17 pm ET



Youngkil Kang, *LIMBO* (2017), pigment-print on rice paper, 59 x 57 inches

LIMBO: Young Gil Kang, the current exhibition at the [Tenri Cultural Institute](#) in New York City, challenges the viewer's sense of truth in a very curious way. It presents, what to most would be an unfamiliar, even worrisome situation of the apparent suspension of life and breath, but not the termination of free thought. A suspension of life as all of Young Gil Kang's subjects here are reclining women situated at or near the bottom of a pool of crystal clear water where there is in fact, no air for human consumption. On the other hand, I believe these women in these photographs are deeply thoughtful individuals caught in "Limbo", as the artist and exhibition's title implies. I say this as I imagine they all are experiencing enhanced brain activity as the corporal connections that the body and mind must make to come to terms with their situation come to the fore.

Printed on oversized sheets of rice paper in rich color, the artist's photographs show us a view from above, as we look down upon the aquatic settings as willing participants who appear to be as detached from their circumstances as is humanly possible. Is this mind over matter? Are all these women in an altered state where the heart slows so that air is not as essential to life as it was moments before?

[평론, 프레스]

레디메이드에서 디지털 감성으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나는 박사과정생이었다. 그 무렵 대학원에 신입생이 한 명 들어왔다.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과 다부진 체격을 소유한 친구였다. 이전에 그는 사진학과에 다니면서 유명한 사진작가의 조수로도 일한 적이 있었으며, 좋은 사진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미학적 안목과 예술 감각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대학원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같은 전공(예술학/미학)이다 보니 스터디를 함께 하면서 그 후배와 친해졌다.

하루는 내가 물었다. "사진기를 메고서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녔겠구나. 거본 곳 중 가장 아름다웠던 곳이 어디였나?" 당연히 사진학도로서 남다른 사진 여행을 했을 거라 기대하면서 먼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친구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형, 요즘 사진학과 학생들은 그렇게 돌아다니지 않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 포토샵 작업하는 시간이 훨씬 많죠. 형이 생각하는 사진작가의 모습은 꽤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아직도 그들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을 보면 당시 크게 충격을 받기는 했던 것 같다. 예술가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를 일거에 무너트트고 일어났으니 말이다. 사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예술 및 예술가의 모습이 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시가 예술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보면, 과거에 예술가들은 자연에서 소재를 구했었다. 그게 쉬웠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조각가는 나무

나 대리석, 점토나 천통을 가지고서 작품을 만들었다. 그러나 20세기로 들어오면서 도시의 작가들은 이미 만들어진 (ready-made) 소반기, 폐자전거, 흰 신발 등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예술과 삶의 경계를 넘어서
일례로 몇 년 전 '서울로707'과 서울역 광장에 한 신발 3만 켤레로 만든 「슈즈 트리」(광지혜 작가)가 설치된 적이 있다. 높이 17m, 길이 100m, 무게 3톤의 초대형 설치 작품이었다. '이게 예술이냐'는 불멘소리로 많았지만, 현대 미술의 큰 흐름 속에 있는 작품임은 부정할 수 없다. 마르셀 뒤샹의 「생」 이후, 예술과 삶의 경계를 무너트트른 레디메이드 작품이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추이이며, 앞으로 이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레디메이드의 감성, 이것은 20세기에 발원한 예술의 현대적 감각이다. 그렇다. 21세기를 특징짓는 미학적 동향은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우선 경구처럼 변화된 "완전"이 담의 심리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21세기 이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변화는 무엇일까? 잠자는 시간 빼고 무언가 생활하는 곳은? 그렇다. 디지털 매체 속이다. 팔자만 하더라도, 2000년대 이후 컴퓨터가 구현하는 가상현실에서 선의 대부분을 보았고 있다. 디지털에서 생의 자극을 읽고 눈문을 검색하고 글을 쓴다. 클립트라이프 수업을 위해 동영상 검색, 오프라인 수업에서까지 파피로인

삶이 파헤쳐지면, 중국에는 예술도 사라화된다. 그렇다면 디지털로 변모되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1세기 예술가와 미학자들은 이 문제로 콜라버리를 써일 것이다.



강영길 "US-온 살바, 강영길은 EFECTcole de communication visuelle privé PARIS 사진작가 중 일했다. 2009년 영문미술관 개관전, 2010년 뉴욕의 현대 미술관 등에서 활동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라, 수학적-논리적 언어다. 디지털 환경은 이런 언어를 통해 구성·작업된다. 최첨단의 이 언어가 가장 원시적인 문자 행단인 그림자에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다. 디지털로 구현된 이미지는 픽셀 단위로 비트로 처리되는 이미지다. 아날로그(analog)는 사물을 '연속적인 변화'로 나타내는 데 반해, 디지털은 분절적이고 불연속적인 표현한 수치로 나타낸다. 디지털 문자체계는 거의 완벽하게 아날로그적 영향을 가동시킨 수 있다. 아날로그 세계의 배후에는 디지털 문자가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은 희곡의 메세
디지털 이미지는 실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예컨대 과거 필름 카메라는 빛에 의한 화학적 반응을 통해 외부 이미지를 직접 안화시켰다. 디지털 카메라는 디지털 정보로 전환했다가 다시 그 정보를 읽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든다. 즉 디지털 이미지는 디지털 코드로 매개된 간접적인 이미지다. 이미지 복사와 변환은 무한히 자유로우며, 복사와 변환에도 불구하고 화질의 변화가 없고, 무한복제가 가능하다. 디지털 정보의 측면에서,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은 완벽하게 무의미해진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실상 이미지는 환상이며 실재는 디지털 코드다. 이미지는 단지 디지털 문자의 생산·처리·경쟁 등의 부산물일 뿐이다. 단지 아날로그적인 인간의 연구에 최적화시켜 변환시킨 자료일 뿐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게 이 이미지의 지시력을 탈락시켜조차 어렵지만, 그 이미지는 극사실주의적 초·상징적 표현을 지니게 된다. 원리상으로 디지털은 탈목재화를 실행한다. 디지털 정보를 신경과 뇌를 신경과 뇌

트로 수업을 한다. 10년 전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접속하며 지내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예술가에 대한 기대는, 그 역시 디지털 환경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주목받는 작가 강영길은 맨 먼저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컴퓨터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변형시킨다. 유화, 수채화, 아크릴화, 파스텔화, 수묵화 등 다양한 색조와 필치를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이런 모든 디지털 매체에 뿌려내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의 작품 「US-온 살바」에는 배낭을 메고 한 손을 응시하는 사람이 등장한다(사진 참조). 아웃포커싱 사진 기법처럼 배경은 지워져서 초점은 자연히 인물에 맞춰져 있다. 정화하는 적고 하얀 직육면체를 백색이 각도를 달리해 세워둔 도양대로 배경을 설정했다. 실상 인물도 해탈한 다들 쓴 직육면체 조각으로 구성하고 있다. 압제감 있는 데고 집착을 감다.

작품 속 인물은 배낭을 짊어지고 우렁하는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컴퓨터 실상은 침묵하고 고독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도상을 종합하게 밝히는 나온사 안 감다. 배배 걸으려면 그는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 행태가 선행하지 않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시선은 손을 향하고 있다.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작품의 제목은 말한다. 그는 현대를 사는 우리(Us) 모습이라고, 스마트폰이 아니라 연봉자가 자기 손을 보게 될 사 탐이라고. 아니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꼭 손 봐 봐야 할 사람이라고(해근 인본이 떠돌려하게 보드했던 배낭 벨 고개 숙인 남자로 연상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디지털 코드로 환원되고 있다. 총아들에게도 디지털 (digital)의 어떤 의미는 숫자를 세는 '숫자'이다. 이 점에서 작품의 주인공이 본 것은 손과 함께된 스마트폰 일 수 있다. 디지털은 0과 1이라는 단순한 이항 코드를 사용한다. 이것은 동일한 틀에 기반을 둔 이분법적 논리체계이다. 당연히 이 언어는 자연언어가 아니



강영길 "US-온 살바, 강영길은 EFECTcole de communication visuelle privé PARIS 사진작가 중 일했다. 2009년 영문미술관 개관전, 2010년 뉴욕의 현대 미술관 등에서 활동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라, 수학적-논리적 언어다. 디지털 환경은 이런 언어를 통해 구성·작업된다. 최첨단의 이 언어가 가장 원시적인 문자 행단인 그림자에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다. 디지털로 구현된 이미지는 픽셀 단위로 비트로 처리되는 이미지다. 아날로그(analog)는 사물을 '연속적인 변화'로 나타내는 데 반해, 디지털은 분절적이고 불연속적인 표현한 수치로 나타낸다. 디지털 문자체계는 거의 완벽하게 아날로그적 영향을 가동시킨 수 있다. 아날로그 세계의 배후에는 디지털 문자가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디지털은 희곡의 메세
디지털 이미지는 실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예컨대 과거 필름 카메라는 빛에 의한 화학적 반응을 통해 외부 이미지를 직접 안화시켰다. 디지털 카메라는 디지털 정보로 전환했다가 다시 그 정보를 읽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든다. 즉 디지털 이미지는 디지털 코드로 매개된 간접적인 이미지다. 이미지 복사와 변환은 무한히 자유로우며, 복사와 변환에도 불구하고 화질의 변화가 없고, 무한복제가 가능하다. 디지털 정보의 측면에서,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은 완벽하게 무의미해진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실상 이미지는 환상이며 실재는 디지털 코드다. 이미지는 단지 디지털 문자의 생산·처리·경쟁 등의 부산물일 뿐이다. 단지 아날로그적인 인간의 연구에 최적화시켜 변환시킨 자료일 뿐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게 이 이미지의 지시력을 탈락시켜조차 어렵지만, 그 이미지는 극사실주의적 초·상징적 표현을 지니게 된다. 원리상으로 디지털은 탈목재화를 실행한다. 디지털 정보를 신경과 뇌를 신경과 뇌

독특한 현대 예술을 만나다... '물속의 현대인' / K...

KBS는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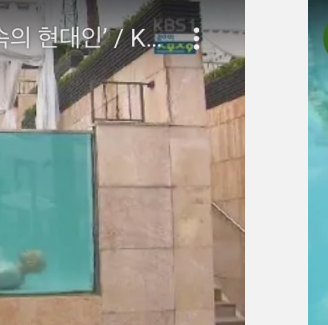


KBS NEWS 9

2018. 6. 28

Y [MBC 문화사색] 강영길 작가

10여 년 동안 자신을 찍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MBC NEWS 9

2019. 5. 16

아리랑 TV, Arts Avenue

I've been trying to portray the delicacy of our time through my series revolving around human bodies and people




Arts Avenue

2016. 11. 3

행복이 가득한 집

2018. 7



행복이 가득한 집

2018. 7

[평면작품 작업 과정]





Youngkil Kang 강영길
Artist based in Seoul, Korea

Education

1999 B.A. in Photography, E.F.E.T(Ecole de communication visuelle privée) PARIS
1995 Diploma, majored in Photography, Seoul Institute of the Arts

Residency

2016-2018 Young Eun Museum, Gyeonggi-do Gwangju
2011-2016 Gana Art Gallery, Jangheung
2008-2009 ARTSIDE Gallery, Beijing

Solo Exhibitions

2021 Gallery M9, Seoul
2020 Woong Gallery, Seoul
2019 Young Eun Museum, Gyeonggi-do Gwangju
2018 Woong Gallery, Seoul
2017 Tenri Gallery, New York
2016 Young-eun Artist Project, Gyeonggi-do Gwangju
2016 Hangaram Art Museum, Seoul
2015 Gana Art Contemporary, Seoul
2013 Insa Art Center, Seoul
2011 Gana Art Contemporary, Seoul
2009 Insa Art Center, Seoul
2009 Gallery ARTSIDE, Beijing
2009 Dusan Art Square, Seoul
2007 Gallery ARTSIDE, Seoul
2001 How Art Gallery, Seoul
2000 Seonam Museum, Seoul

Group Exhibitions

2019 XXL, ArtCN Gallery, Shanghai
2019 The 3rd Image, Kim Chong Young Museum, Seoul
2016 Korea France Amity130 Anniversary Exhibition, Young Eun Museum
2014 Layer of Memory ARTSIDE, Seoul
2014 Liun Gallery, Seoul
2014 Dangin-ri Art Festival, Seoul
2013 SETEC Exhibition of Contemporary Artists, Seoul
2013 Pyeongchang cultural forum Exhibition, Gana Art Center, Seoul
2010 Yeosu International Art Fair, Yeosu
2010 Art Edition 2010, Busan
2010 Jangheung Art Market 'JAM', Jangheung
2005 ART SEOUL, Seoul Arts Center, Seoul
2001 Odyssey, Changwon
2001 How Art Gallery Collection, Seoul
1999 E.F.E.T Graduate Exhibition, Paris, France
1999 Salon de Montrouge Museum, France